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6 월 24 일에 Sunday School VBS 가 있습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께 알려주시고 식사 및 진행과
관련해서 Volunteer 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부탁드립니다.

- 전교인 수련회

일시: 2017. 9.9-10(토-주)

장소: Honor's Haven Resort, Ellenville, NY

2017 년 6 월 안내: 이향복/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성창현 집사/시편 86:1-10, 16-17

이번 주 친교: 강승연/이현주 집사

다음 주 친교: 김은영/Tina Kim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6월 18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23 장(통 23 장) 다함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16:1-2, 12-19 서현숙 권사
찬양(Choir)	“엘리아의 하나님”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창(Gen.) 1:1-5 인도자
설교 (Sermon)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478 장(통 78 장) 다함께 “참 아름다와라”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6. 11. 주일 설교 요약

참된 영광 (갈 6:11-18)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바울은 편지를 쓰는 자신의 간절한 심정과 편지의 모드 교훈과 권면들이 자신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전해줍니다.

바울의 심정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는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쓴 편지일수록 처음과 마지막의 인사가 중요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사랑하고 싶지만 편지로 대신하는 심정이 담겨있습니다. 편지의 내용 만큼이나 누가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를 아는 것이 편지를 제대로 읽는 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큰 글자로 쓰신 편지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내용 만큼이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은혜 대신에 자기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교훈이 사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에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헛되지 않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설교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청중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역의 동기와 내용과 그 결과에서 잘못됐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려는 동기는 실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구원하려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손가락 하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는 바울과 대조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듣는 자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논리와 영향력을 뿌듯해 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육신을 자랑할 거리가 누구보다 많았지만 이제는 쓰러기와 같이 여깁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미련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능력이나 지혜나 성과가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울에 대해 죽었기에 바울의 영광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바울에게 어떤 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 지음 받아 거듭난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사역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 좋게 되는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집니다.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은 결코 듣기 좋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어리석도다!” 라고 소리치는 책망과,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수고, 큰 글자로 적는 절절함과 동일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한숨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아픈 상처가 아닙니다. 아픈 상처를 알아달라는 말도 아니고, 고난을 보상받기 위해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처가 바울과 우리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시관은 우리를 위해 쓰신 찬란한 면류관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받은 고난의 흔적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큰 글자를 우리 인생에 지닌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쓰시는 큰 글자 편지가 됩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증거합니다. 일한 것을 자랑하지도, 보상을 바라며 사람들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뿐입니다.